

화학기업 경영의 최우선 “RC로...”

한국RC협의회 3대 회장에 허원준 사장 선임 ... 사회적 신뢰회복 유도

화학산업계의 환경안전 개선운동인 Responsible Care를 국내에 도입·추진하고 있는 한국RC협의회가 2월27일 롯데호텔에서 제5기 정기총회를 갖고 허원준 한화석유화학 사장을 제3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허원준 회장

허원준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RC 활동은 스스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최고 경영자부터 전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임직원이 함께 실천·개선해 나가는 자발적 운동이므로 환경·안전은 기업의 주요한 경영 방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RC 활동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RC협의회는 RC를 기존의 환경·안전·보건 제도와 통합조정을 거쳐 RC 활동이 경영의 최우선 방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인 이미지 제고 노력과 함께 해외 RC 단체와의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RC협회에는 국내 굴지의 석유화학, 정유, 정밀화학, 비료, 클로르 알카리 생산기업을 비롯해 다국적 기업의 국내법인, 화학 관련 각종 단체 등 총 80여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03년 11월에는 세계 20개국 53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국제회의인 제8회 아시아·태평양 RC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3/03>